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7차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말하기 듣기 영역 분석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황 정 연

7차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말하기 듣기 영역 분석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황 정 연

인 준 서

황정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영어교육은 국제화되어가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한 실용적인 영어회화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교육의 변화는 2007년에 공시된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도 잘 드러나 있으며, 중·고교의 잇따른 교과서의 개편과 영어 수업활동의 심화는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듣기’ 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전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말하기 듣기 능력의 학습목표 분류를 기준으로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말하기 듣기영역 ‘문항유형’을 분석해보았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하기 듣기 시험의 지문의 소재, 음성파일을 이용한 발화의 속도분석, 문화적인 요인, 담화상황 등과 같은 세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목표가 일련의 교육과정의 최종평가라 볼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성공적으로 반영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수학능력시험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05년부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0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영역 말하기 듣기 시험의 총 6년간의 자료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기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후기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후기에는 비교적 전기보다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교육목표를 충족시키는 문항들이 출제되어 청자가 더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파악하도록 하고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로, 전기에 비하여 후기에 좀 더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대화의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며, 사용된 의사소통 기능 또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후기의 대화 지문들은 비교적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준 예문이 많이 등장했으며, 담화 표지어와 감탄사 등의 등장도 전기에 비하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후기는 전기에 비하여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발전적인 변화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전기와 후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의 제안을 해보았다.

첫째로, 교육 목표 중에서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은 평가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존의 문항 유형외의 새로운 유형의 지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말하기·듣기평가에서 사용되는 남성과 여성화자의 참여비중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와 평가간의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시되어지는 만큼, 그에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한 다양한 문항과 대화 지문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1 연구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2.1 듣기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상관관계	4
------------------------------	---

2.2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	6
-----------------------	---

III. 연구방법

7

3.1 문항분석

3.1.1 듣기 및 말하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8
--	---

3.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23
-------------------------	----

3.2.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문 분석	23
-------------------------------------	----

3.2.2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26
--------------------------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2005년-2007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말하기 듣기 문항 분석

4.1.1. 문항분석

1) 듣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30
---------------------------------	----

2) 말하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분석	31
---------------------------------	----

4.1.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문 분석	34
----------------------------------	----

2) 대화문에 나타난 소재 분석	36
3) 대화문의 속도 분석	38
4)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40
4.2 2008년-2010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말하기 듣기 문항 분석	
4.2.1 문항분석	
1) 듣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48
2) 말하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49
4.2.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문 분석	51
2) 대화문에 나타난 소재 분석	54
3) 대화문의 속도 분석	56
4)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57
4.3 2005년-2010년 분석내용 정리	
4.3.1 문항분석	
1) 듣기 및 말하기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65
4.3.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문 분석	67
2) 대화문에 나타난 소재 분석	69
3) 대화문의 속도 분석	69
4)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70
V. 결론 및 제언	73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1 연구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실용적인 영어 사용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와는 대조적으로 공교육기관에서의 영어 교육은 문자 중심의 번역식 수업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영어 공교육의 변화 없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짐을 인식함에 따라 교육과정은 점차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형, 발전해왔다.

2007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 공시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 초부터 시작된 영어 의사소통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영어 교과서가 개편되었고, 외국어 (영어) 수업의 심화과정과 회화 수업의 시수가 늘어나는 등 기존 영어 교육과정보다 의사소통, 즉 말하기 및 듣기 능력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2001년도에 발표한 7차 초기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표와 2007년 개편 후에 고시된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살펴보면, 교육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기능의 범주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초기와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은 둘다 7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표는 개정 전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분류를 좀 더 포괄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더 많은 의사소통 기능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 제시되었던 의사소통 기능 중 ‘문제 해결하기’의 항목은 ‘사실적인 정보 교환하기’의 항목으로 통합되었고 대신에 ‘상상하기’

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설득과 권고’의 항목은 더 많은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지시와 권고하기’로 재분류 되었다. 이것은 의사소통 기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확장된 범주의 의사소통 기능을 교육하고자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자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변화는 고교에서의 영어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편,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최종 평가에 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서로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련의 교육과정에 의한 긴 학업을 평가하는 최종관문과 같이 여기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만을 위한 시험’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전국적인 규모의 시험으로써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의 방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공교육과정에서 영어 듣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지도방법에 변화를 가져온 것도 이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듣기시험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이다. 7차 교육과정의 개편이후, 영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 간 것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수업 내용도 의사소통 능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그 총체적인 결과의 평가가 되는 수능에서도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의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대상과 규모가 전국적이며 대단위인 관계로 실질적인 ‘말하기’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지는 않다. 영어 말하기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로 정부에서는 영어 말하기를 통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의 도입에 관련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 말하기 시험으로 수능에서의 영어 말하기 영역을 대체

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말하기 영역을 듣기영역과 결부시켜 평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겨왔다. 즉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듣기 시험을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듣기 시험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 시험 문항이 단 8문항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아 2010년 현재는 17문항으로 두 배 이상 그 수가 늘어났으며, 배점도 커지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듣기시험이 단순히 영어의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변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5년부터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0년까지의 총 6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의미 있는 변화의 여부를 살펴보고자한다. 자료는 크게 2005년, 2006년, 2007년의 3년간을 전기, 이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의 다시 3년간을 후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변화의 추이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상관관계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기술 중에서 듣기는 다른 기술에 가장 높은 전이를 보이는 필수적인 기능이다. (Asher 1969, Lundsteen 1971, Slobin 1974, 한종임·최세리 1998, 박덕제 2001, 정지나 2009) 따라서 듣기는 이해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Rivers 1981) Krashen (1985)은 그의 입력가설을 통해서 충분한 입력, 즉 충분한 듣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input; listening) 출력, 즉 말하기가 (output: speaking) 가능하다는 이론을 내세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듣기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으나, 듣기가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전 연구에 비하여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듣기를 할 때 청자는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듣기는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영어 학습이 아닌, 말하기만큼이나 매우 능동적인 참여임을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 (박덕제 2001, Anderson & Lynch 1988) 의사소통 능력은 화자와 청자사이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즉 청자와 화자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어야 의사소통 능력의 유무에 대하여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말하기 능력은 듣기 능력과 연관 지어 평가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언뜻,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듣기 능력은 말하기 영역의 측정에는 미흡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으나, 영어 학습에 있어서 듣기와 말하기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말하기 능력의 평가에 듣기 시험을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듣기 시험을 말하기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수능능력시험의 평가방법은 의사소통 기능, 즉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데 수단으로써 기초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수동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2.2.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

의사소통 기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범주로 분류되어 왔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Swain(1980), Canale(1983)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Hymes(1967)가 제시한 4가지의 범주에 따라 나뉜 것이다.

첫째로, 의사소통 능력이란 목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언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인 지식이란 문법과 어휘, 통사 등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둘째로, 의사소통 능력이란 담화적인 능력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문법과 어휘 등의 지식이 있어도 이것을 담화로써 실제화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이란 사회언어적인 능력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간의 문화와 기초적인 배경지식에 따라 알맞게 대화를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일본어에서 감사를 의미하는 ‘すみません’을 사과의 의미인 ‘I’m sorry.’로 인식한다면, 이것은 사회언어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원

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략적인 능력을 들 수 있다. 전략적인 능력이란, 실제의 대화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발화상의 (performance) 실수로 인해 대화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대화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게 하거나, 상화에 맞는 발화의 방식을 결정하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능력 또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여겨진다.

의사소통 능력은 초기에는 언어적인 지식의 측면에서 발달하여 점차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함께 대화의 전략적인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큰 범주의 개념으로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 광범위한 의사소통능력의 기능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류를 시도하였고, 그에 따른 교수법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Halliday(1973)는 의사소통 기능을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규제적 기능(regulatory), 설명적 기능(representational), 상호작용의 기능(interactional), 개인적 표현 기능(personal), 발견적 기능(heuristic), 상상의 표현기능(imaginative)의 7가지로 분류하였는가하면, Finocchiaro와 Brumfit(1983:23-24)는 의사소통 기능을 개인적(personal)기능, 대인적(interpersonal)기능, 지시적(directive)기능, 참고적(referential)기능, 상상적(imaginative)기능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류의 방식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 기능의 지도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고시자료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는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련한 연구와 분류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 재분류 한 것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에는 대표적인 예문 또한 함께 삽입되어 있어서 교육현장에서의 사용에 실용성을 더하고자 했다. (김문 2006, 한국 교육과정 연구원 2001)

Ⅲ. 연구 방법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시한 대학 수학 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의 시험대비 수험자를 위한 설명집과 출제 매뉴얼의 외국어(영어) 영역을 살펴보면,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영어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개정 7차 교육과정으로의 변화와 함께 이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시험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추어 의사소통능력의 측정에 더욱 적합하도록 함께 변화해왔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목적에 맞도록 시험의 문항이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신장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항과 지문이 선정되었는지 그 적절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말하기 듣기 영역의 문항 분석과 대화문의 분석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문항 분석은 고교 외국어 교육과정 중 영어과 교육에서 제시한 고교 심화 선택과목의 교육목표 중 ‘듣기’와 ‘말하기’영역의 성취 기준 표를 자료를 정리한 ‘성취 목표 평가 기준 표’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이어서 듣기 대화문의 분석은 교과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과 그 예시문’에서 주어진 의사소통 기능을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대화문의 속도, 소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대화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예문의 실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문항분석

3.1.1 듣기 및 말하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1) 성취 목표 평가 기준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영어과 심화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요하는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자료로 사용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시험의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인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의 수업에서 쓰이는 ‘공통영어’와 같은 고교 2학년 이전의 영어과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목은 그 내용이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문항분석 연구에서는 대학수학 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교의 영어 심화 선택과목 중 ‘듣기’, ‘말하기’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실용영어 회화와 심화 영어 회화와 비교적 모든 고등학교에서 2학년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1’, 3학년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2’ 교과목의 성취 목표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고등학생 수준의 범교과적인 출제 범위를 가진다고 공시되어 있다. 또한 출제 되는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고교 영어과 심화 선택 교과과정의 목표를 중심으로 성취 목표 평가 기준 표를 작성 할 수 있었다.

분석의 기준이 된 성취 목표 평가표는 교과부 2007-79고시 교육과정 자료의 고등학교 영어과 심화 선택과목의 말하기와 듣기 영역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과목별로 나타난 성취목표의 내용 중 비슷한 내용은 통합 또는 생략하였으므로, 공시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작성된 성취 목표 평가 기준표는 각각 듣기와 말하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듣 기

- 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 토론을 듣고 중심내용을 파악한다.
- ②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
- ③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 의도를 파악한다.
- ④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대화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한다.
- 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 ⑥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전후 내용을 추론한다.
- ⑧ 안내나 지시를 듣고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2) 말하기

- ① 일반적인 인물, 사물, 사건에 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 설명 또는 보고한다.
- ②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실적 정보를 교환한다.
- ③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
- ④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 대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 ⑤ 대화, 연설, 역할극 등을 연습하여 재현한다.
- ⑥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한다.
-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대화한다.
- ⑧ 일반적인 주제의 말이나 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 ⑨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학습한 표현을 활용, 준비된 발표를 한다.
- ⑩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가 고교 영어과 심화 선택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하나,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 또한 간접적인 출제가 가능하므로, 국민기본 공통 교육과정의 성취 목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의 성취 목표 평가 기준 표를 작성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영어과에 해당하는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 과목의 성취과정은 각 학년별 성취목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세분화, 다양화됨을 알 수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 목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및 소재는 친숙하고 신변적인 것에서 일반적이고 다양하며 시사적인 것으로, 구체적이고 주변적인 것에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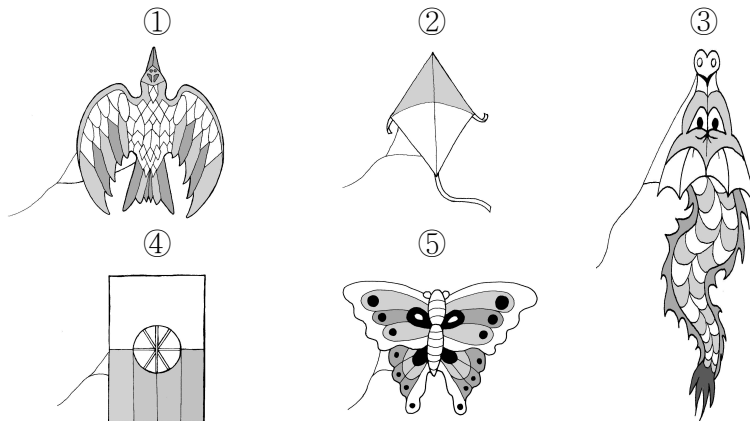
2) 문항 유형에 따른 분류와 연구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다양한 지문을 읽고 제목, 주장, 글의 분위기 등과 같은 주제나 대의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둘째, 첫째와는 반대로 지문의 세부적인 정보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들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영어의 적절한 표현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문항이 있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을 ‘말하기 시험’이라 명명하며, ‘대화를 완성하기,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발화 선택하기’와

같은 유형의 문제로 총 5문항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2문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그림이나 도표를 설명에 따라서 분석하여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형, 화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묻는 문형, 대화를 듣고 주제 또는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문형 등이 주어지며, 대화의 전개에 따라서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문형 등이 다양하게 출제 된다. 각 문항별 유형을 2005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문제지를 보면서 문항의 번호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1번~4번>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연’을 고르시오. [1점]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pleased ② sad ③ indifferent
- ④ frustrated ⑤ angry

3. 다음을 듣고, 여자가 설명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도장 ② 바둑돌 ③ 동전

- ④ 젓가락 ⑤ 주사위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걸어 확인한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전등 끄기 ② 물고기 먹이 주기
 ③ 수도 잠그기 ④ 화초 물 주기
 ⑤ 가스 밸브 잠그기

1번은 대화를 듣고 주어진 그림 5개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내용과 실제 사물을 매치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다. 2번은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등장인물의 심경을 짐작해보는 문제이다. 대화자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나, 대화지문에서 주어진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은 객관식 보기에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다른 어휘로 바뀌어져 나오고 있다. 3번은 설명을 듣고 그 대상을 유추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에서는 대화가 아닌 내레이션으로 지문이 주어진다. 4번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사실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문제이다. 1번에서 4번까지의 문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문형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200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5번~9번>

5.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이번 주말에 하기로 한 일을 고르시오.

- ① 나무 심기 ② 양로원 방문하기
 ③ 집 수리하기 ④ 소방서 일손 돕기
 ⑤ 강변 청소하기

6. 다음을 듣고, 남자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전국 일주 여행을 하라.
- ② 농촌 봉사 활동에 참여하라.
- ③ 학교 공부에 매진하라.
- ④ 건강을 위해 운동하라.
- ⑤ 가족과 함께 친지를 방문하라.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받을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고르시오.

- ① \$1.00 ② \$1.50 ③ \$2.00 ④ \$2.50 ⑤ \$3.00

8. 다음을 듣고, 두 사람의 역할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u>BILL</u>		<u>JOANNE</u>
① researcher	-----	singer
② entertainer	-----	researcher
③ singer	-----	master of ceremonies
④ fund-raiser	-----	entertainer
⑤ master of ceremonies	-----	fund-raiser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현 위치에서 산 정상에 도달하는 데 예상되는 시간을 고르시오.

시 간

거 리

- | | | |
|-----------------|-------|--------------------|
| ① about 1 hour | ----- | about 500 meters |
| ② about 1 hour | ----- | about 1,000 meters |
| ③ about 2 hours | ----- | about 1,000 meters |
| ④ about 2 hours | ----- | about 1,500 meters |
| ⑤ about 3 hours | ----- | about 1,500 meters |

5번부터 9번까지 문항에서는 5가지 문형이 매년 등장하고 있었다. 보기의 문제 5번은 대화를 듣고 대화에 나온 여러 가지 사실적인 정보 중 묻고 있는 특정 정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6번은, 대화를 듣고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며, 대부분 내레이션을 듣고 해결하는 문형이었다. 7번은 숫자와 달리 화폐단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문제로, 거스름돈이나 지불할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8번은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때때로 대화자의 직업을 유추하는 문형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9번은 대화의 장소를 유추하는 문제로 다른 해에는 대화의 장소만을 묻는 문제로 출제 되었으나 예문에서 볼 수 있듯 2005년의 문형에서는 대화의 현재 장소보다는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와 그 예상 시간을 묻는 다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200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10번~12번>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하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 | |
|--------------|-------------|
| ① 근무 날짜 바꾸기 | ② 낚시 함께 가기 |
| ③ 숙제 도와주기 | ④ 운전 가르쳐 주기 |
| ⑤ 독서 클럽 참가하기 | |

11. 다음 여행 일정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휴가를 떠날 요일을 고르시오.

	① SUN	② MON	③ TUE	WED	THUR	④ FRI	⑤ SAT
3 Days						Dep.	
5 Days	Dep.						Dep.
7 Days		Dep.	Dep.				

* Dep.: Departure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한 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처음에는 뉴욕만 방문하기로 했다.
- ② 보스턴에서 역사적 명소를 방문했다.
- ③ 뉴욕에서 박물관을 구경했다.
- ④ 보스턴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 ⑤ 보스턴보다 뉴욕을 선호한다.

10번 문항은 들려준 대화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할 행동을 유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해력과 유추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11번 문항은 도표나 그림과 같은 시각자료를 제공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발화를 듣고 문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주어진 자료를 바르게 분석함으로써 해결하는 문형이다. 12번은 내레이션 또는 대화문으로 주어지는 문제로, 주어지는 말을 듣고, 사실적인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10번에서 11번까지의 문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문형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200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13번>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⑤

이어지는 13번 문항부터는 ‘말하기’시험 영역 문항에 해당한다. 13번 문항은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대화를 찾는 문제이다.

<200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14번>

14.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_____

- ① The restaurant is under construction.
- ② I can't answer any more questions.
- ③ The class was great! Thanks for the book.
- ④ I really appreciate your cooperation.
- ⑤ I haven't seen you for ages.

14번부터 16까지의 3개의 문항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마지막 응답을 고르는 문제로서, 맥락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17번>

17. 다음을 듣고, 젊은이가 제과점 여주인에게 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Young man: Madam,

- ① your kindness will not be forgotten.
- ② thank you. Please have a sample.
- ③ would you happen to know the time?
- ④ thank you for being a good student.
- ⑤ could you show me how to make bread?

마지막 17번은 내레이션으로 주어지는 상황이나 짧은 이야기를 듣고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것으로 상황과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13번에서 17번까지의 문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문형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은 정해진 골격에 맞춰 출제 되고 있으나 매년 주어지는 문제의 유형과 지문의 내용, 유추능력이 요구되는 정도에 따라 성취 목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지문을 성취 목표 평가 기준표에 맞춰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겠다.

<2006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6번>

6.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한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 I'm here to tell you about my vision of the future and to give you a chance to invest in a great new product. Imagine that you have the flu and go to the doctor's office. The doctor writes you a prescription. Then instead of waiting in line in a pharmacy for your medicine, you go to a vending machine, punch in your ID number and get your medicine. That's right—a vending machine from which you can get prescription drugs! Getting your medicine would be no more difficult than getting money from a cash machine. Don't let this great business opportunity pass you by. Invest in my new machine and be a part of the future.

<2007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7번>

7.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 Today is a special day. Jane and Kevin are having their second wedding ceremony. You might think this is unusual, but they

have gone through an extremely difficult time. Kevin had a car accident three years ago, and his legs were paralyzed. Jane lovingly took care of her husband, and a miracle happened: He was able to walk again. So, they are going to confirm their love with this ceremony. You've guessed it! This is the latest episode of the popular soap opera, Forever Love. It will be on Channel 12 at 9:30 this evening as scheduled. Don't miss it.

위의 두 예문은 각각 2006년도의 6번, 2007년도에 7번 문항으로 출제된 듣기 대본이다. 두 문항이 동일한 문형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성취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6년 6번의 경우 청자에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 회유, 설득하기 위한 자리의 프레젠테이션 상황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말하기 성취목표 중 '㉗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상황과 목적에 알맞은 대화를 한다'의 성취목표에 부합한다. 한편 2007년 7번의 경우에는 청자에게 드라마의 예고편을 설명하며 시청을 북돋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자에게 정보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하므로, 말하기 성취 목표 중 '㉓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에 가장 부합한다.

<2008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9번>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W: Look! Isn't it amazing?

M: Yes, it's fantastic!

W: I can't believe we have such a wonderful open space here,
on top of our office building.

M: Before, it was so messy up here.
 W: Yes, there was nothing but junk and old equipment.
 M: Now, it's a renewed space with all of these beautiful flowers, trees, and wooden benches.
 W: Yes. I feel like I'm on top of a mountain.
 M: I'm going to come up here often. How about you?
 W: I wish I could, but these days I'm too busy.
 M: Then, what about having this Friday's meeting here?
 W: Oh, that's a great idea! Meeting outside on top of a building! This could be the best meeting we've ever had.

<2010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8번>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W: Thank you for letting us visit you.
 We're really excited to be here.
 M: You're welcome.
 It's great to have high school students come visit us.
 W: We all want to be news reporters and photographers.
 M: Great. Come this way. This is where we write articles.
 W: Everyone looks so busy!
 There are so many people on the telephones and computers.
 M: That's because we always have deadlines to meet.
 W: What time do you go to the printers?
 M: It's midnight for our daily morning edition.
 W: Wow! I didn't realize this place is so busy all the time.

M: Uh-huh. This is an exciting and dynamic place to work.

위의 두 예문은 각각 2008년도의 9번, 2010년도의 8번 문항으로 출제된 듣기 대본이다. 두 문항 역시 동일한 문형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성취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8년의 9번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있는 장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듣기 성취목표 중 ‘②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2010년 8번의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곳이 어디인지를 유추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는 ‘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다’에 부합한다. 말하기의 성취목표도 두 개의 문항이 다르게 분석되는데, 먼저 2008년 9번을 보면, 두 사람이 회사의 옥상에 새롭게 마련된 정원을 보며 감탄하고 이곳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떻겠냐는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성취 목표는 ‘⑧ 일반적 주제의 말이나 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가 될 것이다. 한편, 2010년 8번 문항은 학생들이 신문사를 견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과 직원의 말투가 존칭형(formal)임을 볼 수 있으며,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대화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므로, ‘⑦ 일반적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대화한다’에 적합하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서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 문제라도 할지라도 주어진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 문항의 평가하고자 하는 성취 목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문항 분석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듣기 말하기 시험 1번 문항부터 17번 문항까지 듣기와 말하기의 성취 목표 평가 기준에 따라 나눠보자 한다. 매년 출제되는 문형이 고정되어 있으나, 각 문항이 같은 성취목표가 달성되도록 문항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같은 유형이더라

도 다른 성취목표의 달성을 목표로 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주어진 성취 영역이 골고루 문제에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성취 목표의 영역이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3.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평가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한 화자에 의한 안내방송 등의 내레이션의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 지문에서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통한 분석을 해 봄으로써, 이 지문이 수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는지, 다양한 주제 및 소재를 바탕으로, 지문을 구성하였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용론적인 분석을 통해 이 지문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능력의 간접적 평가’라는 대학 수학능력의 성격에 맞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문 분석

2007년 개정, 공시된 교과과정의 의사소통 기능지도를 위한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친교활동’, ‘사실적 정보교환’, ‘지적태도 표현’, ‘감정표현’, ‘도덕적인 태도 표현하기’, ‘지시와 권고’의 7가지로 분류되어있다. ‘친교활동’에는 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주의 끌기, 칭찬·축하·감탄하기, 약속하기, 기원하기, 음식 권유하기와 응답하기, 이해 점검하기, 되묻기, 전화하기 및 받기, 대화 지속하기, 대화 끝내기, 제의와 초대하기의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적 정보교환’은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를 포함하여, 사실 확인하기, 사실 묘사하기, 보고하기, 수정하기, 표현 묻기, 비교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의 9개 항목이 있다. 이어서 ‘지적태도 표현’에는 동의하기, 반대하기, 기억 확인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확신여부 묻고 답하기, 의무표현하기, 허락 요청하기, 허락하기, 의견 표

현하기, 원인과 결과 표현하기, 길 묻기·안내하기의 11개 항목이 있다. ‘감정표현’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원하는 것 표현하기, 동정 표현하기, 소망·의지 표현하기, 불평하기, 관심 표현하기로 7개 항목이 있다. 이어서 ‘도덕적인 태도 표현하기’에는 사과와 변명하기, 후회 표현하기의 두 가지 항목이 있으며, 지시와 권고에는 설득하기, 도움 요청하기, 충고하기, 경고하기, 지시하기의 다섯 개의 항목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상상하기’는 상상하여 말하기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육과정 자료에는 각 하위항목들이 다시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그에 알맞은 예문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위에 나열한 분류의 범주 내에서 대화지문에 드러난 의사소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의사소통 기능분류를 이용하여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지문에 드러난 대화문의 의사소통 기능의 등장 횟수와 기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영역에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각 의사소통 기능들이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문분석에서는 세분화된 항목과, 함께 주어진 예시문을 참조하여, 세분화된 항목의 상위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의사소통 기능 분류를 이용한 분석은 어떠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의 문항 내에서 중복되는 같은 하위영역의 등장은 1회로 간주하여, 전반적인 사용 빈도를 내보기 위한 작업을 하였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2008년도의 5번 문항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2008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문제지 5번>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액을 고르시오.

A. W: Hi, are tickets for the opera still available?

M: **Yes, we have some, but near the back.**

W: That's okay. How much are they?

M: They're \$50 each for adults and \$35 each for children.

B. W: I'll take two adult tickets, please. I have a membership card. I get 20% off with it, don't I?

M: *Yes, you do.* You can get the discount for both with your card.

W: Wonderful. I also have a 10% off coupon here.

Can I use it with my membership card?

M: I'm afraid not.

The card and the coupon cannot be used together.

W: Okay, here's my membership card.

M: Alright. One moment, please.

지문의 A의 인접 쌍을 살펴보면 여성 화자가 티켓을 구입하기 위하여 직원과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온다. 여성화자의 'Hi'는 주의를 끌기 위한 간단한 인사의 모습으로 '친교활동'의 '인사하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어지는 여성의 티켓 구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직원의 대답은 '사실적 정보 교환' 중 '물건사기'에 해당한다. 지문의 B부분에서는 할인카드에 대한 정보를 묻고 답하는 부분으로 '사실적 정보 교환'중 '사실 확인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계속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할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문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기능을 기록할 때에는 중복된 것을 여러 번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비록 지문들이 비슷한 수의 인접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쌍이 하나가 늘어남으로써 위의 지

문과 같이 같은 하위항목의 의사소통 기능이 계속 나열된 지문들이 등장할 경우,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된 의사소통 기능의 비율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한 번씩 등장한 것과 같이 취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8년 지문 5번은 ‘친교활동’ 항목 중 ‘인사하기’를 한 번 사용, ‘사실적 정보 교환’ 중에서 ‘물건사기’와 ‘사실 확인하기’가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기록했다.

3.2.2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1) 대화 지문에 나타난 소재 분석

대학 수험능력시험 말하기 듣기영역에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듣기 문제를 풀 때에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듣고 있는 내용의 소재를 알맞게 파악함으로써, 수험자는 논리적인 유추나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 대화의 상황에서도 화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대화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즉 그 소재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발화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대학수험능력시험의 수험자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전략’이 어느 정도 사용 될 수 있다. 대학수험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한 설명집을 살펴보면 대학수험능력시험에서는 이러한 추론적인 이해력 또한 시험의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소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익숙하고 관심이 있었던 소재가 등장하면 청자, 즉 수험자는 그렇지 않은 소재가 등장했을 경

우보다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일상적이고 알기 쉬운 소재부터 다소 추론을 요하는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를 등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소재가 중복 없이 등장하고 있는지, 등장한 소재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 영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2) 대화문의 속도 분석

일반적으로 영어 모국어 화자는 분당 150단어를 발화 할 수 있다고 한다. (Maclay & Osgood, 1959) 이는 한 단어를 발화하는데 약 0.4초가 걸린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고 해서 부자연스럽게 느리게 발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습자 스스로가 일반적인 모국어 화자의 발화속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각 문항별 듣기 대본을 통해 단어의 수와, 실제 발화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발화속도를 측정해보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발화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 대화의 남녀 성별에 따른 분석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시험은 총 남성과 여성화자의 두 명의 대화로 이루어진 지문이 13개, 한명의 내레이션이 4개로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언어능력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다르다고 보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남성화자와 여성화자의등장이 동등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지, 지문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역할을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는지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대화의 기여도에 성별에 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만을 살펴보았다.

대화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전화대화의 경우에는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닌, 전화를 건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Shegloff, 1986)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전화벨이 울리고 그에 대해 ‘여보세요’ 대답을 한 경우는 ‘여보세요’라고 말을 한쪽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닌 대답을 하도록 전화를 건 인물이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 상대가 전화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여보세요’라는 대답이 쌍방에 수화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전화 상황을 따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음으로 말을 한 화자의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고자 함을 밝힌다.

4) 년도 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 대화지문은 듣기 시험에 배정된 시간적인 제약, 교과과정에 지정되어 학교의 수업을 통하여 이미 학습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의 수준 유지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므로, 실제 대화와 같은 지문을 그대로 넣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능력의 간접적 평가’라는 대학 수학능력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실용적이고 실제와 같은 대화의 지문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듣기 대화지문에서 볼 수 있는 대화의 양식은 A1→B1→A2→B2 등으로 이어지는 화자간의 대화의 말차례가 한 번씩 번갈아 오가는 전형적인 양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이러한 말차례 주고받기의 양식을 따르지만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화지문의 일부분을 발췌해 보고자 한다. 또한 화용론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전략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요소를 보여준 예문들을 좋은 예문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제출제를 위해 억지로 조합된 부자연스러운 인접쌍이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았다.

5) 인접쌍의 개수

한 문제의 대화지문에서 인접쌍이 몇 개가 등장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나치게 길거나 너무 짧은 인접쌍이 등장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시간과 난이도와 관련하여 인접쌍의 개수와도 연관 지어 분석했다.

6) 대화의 스타일로 본 듣기 대화문 분석

Martin Joos(1967)는 의사소통 능력 중의 하나로 대화의 상황에 알맞은 대화의 형식을 갖추는 것을 꼽았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상황에 맞도록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영어가 유창하다 하더라도 무례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알맞은 대화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듣기 대화의 지문에서 나타나는 대화문의 스타일은 대화의 상황뿐만 아니라, 대화자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지문은 크게 격식을 차린 대화(formal communication style) 또는 친밀한 대화(casual communication style)로 나누어 보았다. 수험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듣기 지문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대화의 스타일을 구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상관관계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대화문을 스타일에 따라 분석해보고, 각 대화의 스타일에 따라서 대화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4.1 2005년-2007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말하기 듣기 문항 분석

4.1.1 문항분석

1) 듣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2005-200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문항을 교과과정의 성취 목표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표-1>은 듣기 영역의 성취목표를 평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듣기영역

평가영역	해당 문항수			합계	백분율
	'05	'06	'07		
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 토론을 듣고 중심내용을 파악한다.	3	3	3	9	17.65
②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5	7	5	17	33.30
③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 의도를 파악한다.	3	2	4	9	17.65
④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대화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한다.	0	0	0	0	0
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0	0	0	0	0
⑥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0	0	0	0	0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전후 내용을 추론한다.	4	3	3	10	19.61
⑧ 안내나 지시를 듣고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2	2	2	6	11.76

먼저 듣기 영역의 성취목표로 문항을 분석한 <표-1>을 살펴보겠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총 51개의 문항 중 17개의 문항에서 나타난 ‘②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로 33.33%였다.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진 것은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전후 내용을 추론한다’로 총 10문항이 출제 되어 19.61%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는 ‘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 토론을 듣고 중심내용을 파악한다’와 ‘③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 의도를 파악한다’의 두 가지 평가영역으로, 각각 9문항씩이 출제 되어 17.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⑧ 안내나 지시를 듣고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가 6문항이 출제되어 11.76%를 차지하고 출제된 평가영역 중에서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문항도 출제되지 않은 것은 ‘④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대화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한다’와 ‘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그리고 ‘⑥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의 세 개의 항목이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사실과 의견의 구분과 같이 단순히 듣고 정보를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 들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문항의 출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난한 문항이 출제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2) 말하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표-2>는 말하기 영역의 성취목표를 평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말하기 영역

평가영역	해당 문항수			합계	백분율
	'05	'06	'07		
① 주변의 인물, 사물, 사건에 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 설명 또는 보고한다.	3	1	3	7	13.73
②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실적 정보를 교환한다.	3	1	1	5	9.80
③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	1	1	2	4	7.84
④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 대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0	0	0	0	0
⑤ 대화, 연설, 역할극 등을 연습하여 재현한다.	0	0	0	0	0
⑥ 상호 작용을 통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한다.	2	4	2	8	15.69
⑦ 일반적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대화한다.	6	9	7	22	43.14
⑧ 일반적 주제의 말이나 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2	1	2	5	9.80
⑨ 일반적 주제에 관해 학습한 표현을 활용, 준비된 발표를 한다.	0	0	0	0	0
⑩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한다.	0	0	0	0	0

가장 많이 등장한 성취 목표 영역은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대화한다’로 총 51문항 중에서 22문항으로 43.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기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듣기시험에서 주로 측정되는 말하기 영역의 성취 목표는 이것으로 대표된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⑥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한다’로 15.69%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2005년과 2007년에 비해 이 성취목표에 부합하는 문항들이 더 많았다. 세 번째로 ‘① 주변의 인물, 사물, 사건에 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 설명 또는 보고한다’가 총 7문항이 출제 되어

13.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②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실적 정보를 교환한다’와 ‘⑧ 일반적 주제의 말이나 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가 각각 5문항씩 출제되어 9.8%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가 4문항 출제되어 7.84%를 차지하였다.

이 밖의 문항에서는 한문항도 출제 되지 않았다. 출제 되지 않은 영역의 목표는 ‘발표, 토론, 역할극’과 같은 실제 말하기의 활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말하기 듣기의 시험을 통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목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말하기’시험이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더욱 부합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듣기와 말하기 영역 모두 매년 같은 항목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출제되는 문제의 비율은 다르지만, 결국 측정되는 성취목표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좀 더 여러 가지 성취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항들은 절반이나, 3분의 1의 수준을 넘고 있어서 치우친 출제가 되었다.

말하기 영역의 경우 듣기시험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것은 직접 ‘말하기’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여부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심화된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이다.

4.1.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문 분석

<표-3> 의사소통 기능 제시 분류에 의한 대화지문 분석

대분류	소분류	등장 빈도			백분율	총합
		'05	'06	'07		
사실적 정보 교환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11	3	7	10.5	37
	사실 확인하기	4	3	4	5.5	
	사실 묘사하기	7	9	7	11.5	
	보고하기	2	4	5	5.5	
	수정하기	0	0	0	0	
	표현 묻기	0	0	0	0	
	비교하기	1	1	0	1	
	물건 사기	2	1	2	2.5	
음식 주문하기	0	0	1	0.5		
지적 태도 표현	동의하기, 반대하기	1	2	5	4	14
	기억 확인하기	0	1	1	1	
	가능, 불가능 표현하기	0	1	1	1	
	확신여부 묻고 답하기	0	0	1	0.5	
	의무 표현하기	1	0	0	0.5	
	허락 요청하기, 허락하기	1	0	1	1	
	의견표현하기	3	3	2	4	
	원인과 결과 표현하기	1	3	0	2	
길 묻기, 안내하기	0	0	0	0		
친교활동	인사하기	5	1	4	5	25.5
	소개하기	1	0	1	1	
	감사하기	5	5	4	7	
	주의 끌기	1	0	3	2	
	칭찬, 축하, 감탄하기	3	2	2	3.5	
	약속하기	0	0	0	0	
	기원하기	0	1	1	1	
	음식 권유와 응답하기	0	0	0	0	
	이해 점검하기	0	0	0	0	
되묻기	0	1	1	1		

	전화하기 및 받기	3	2	1	3	
	대화 지속하기	0	0	0	0	
	대화 끝내기	0	0	0	0	
	제의와 초대하기	1	2	1	2	
도덕적 태도의 표현	사과와 변명하기	0	2	2	2	2.5
	후회표현하기	0	1	0	0.5	
지시와 권고	설득하기	0	2	0	1	10.5
	도움 요청하기	1	1	2	2	
	충고하기	1	3	2	3	
	경고하기	0	0	0	0	
	지시하기, 금지하기	0	2	7	4.5	
감정표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표현하기	2	2	3	3.5	9
	희로애락표현하기	0	0	2	1	
	원하는 것 표현하기	1	3	0	2	
	동정 표현하기	0	0	0	0	
	소망, 의지 표현하기	0	1	2	1.5	
	불평하기	0	2	0	1	
상상하여 말하기	관심 표현하기	0	0	0	0	1.5
	상상하여 말하기	0	1	2	1.5	

대화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의사소통기능은 ‘사실적 정보 교환’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적인 정보의 교환 중에서도 ‘사실 묘사하기’와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의 항목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의사소통 기능은 25.5%를 차지한 ‘친교 활동’이었다. ‘인사하기’와 ‘감사의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나, 직접적이지 문제의 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친교활동의 영역 중, ‘주의 끌기’와 같은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 친교적인 대화를 이용하여 화자의 발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문에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지적 태도의 표현’영역으로 14%를 차지하였다. ‘지적 태도의 표현’에서는 ‘동의하기와 반대하기’와 ‘의견표현하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이어서 ‘지시와 권고’영역에서는 ‘지

시하기와 금지하기’ 항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표현하기’와 ‘희로애락 표현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감정표현’ 영역이었다. 이어서 ‘사과와 변명하기’의 의사소통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태도의 표현’ 기능이 2.5%, ‘상상하여 말하기’가 총 3번의 등장으로 1.5%를 차지하였다. 모든 영역이 사용되었지만, 사용된 비율의 차이가 영역별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항목이 다양한 것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럼과 동시에 ‘사실적 정보의 교환’이나 ‘친교활동’과 같은 의사소통 기능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적절한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2) 대화문에 나타난 소재 분석

각 문항에서 나타난 중심 소재를 등장의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순 번	중심소재		
	2005	2006	2007
1	연	TV구입	이불
2	저녁식사 준비	여행	비행기예약확인
3	주사위	커피 보관법	충돌실험용 인체모형
4	집안일 점검	콘서트	음식주문
5	여가, 봉사활동	싱크대 수리	등록금 납부
6	농촌봉사활동	약 자동판매기 프로젝트	자물쇠 고장
7	학생 재활용 장터	모스크바비행기 티켓 구매	드라마 예고
8	기부금조성 이벤트	운동선수 인터뷰	복사

9	등산	출판	유물관람(박물관)
10	근무일 바꾸기	요리 준비	스캐너
11	도쿄여행	관광일정	컴퓨터 구매 (시장조사)
12	뉴욕, 보스턴 여행	패션동향	뉴스 헤드라인
13	과일	엘리베이터	자전거
14	차수리	여권사진	테니스
15	아동복	등산	헬멧
16	밀짚모자	신문배달	폭풍
17	설문조사	핸드폰	미술관
18	음악	집세	기타 레슨
19	알람시계		간병
20	빵집의 미담		

3년간의 등장 소재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지만 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소재들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새로운 기계, 기구의 사용에 관련한 소재와 여행에 관련된 소재는 매년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소재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면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지문들에서는 듣는 이의 문화권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이야기, 즉 가족과 이웃 간의 서로 도움, 봉사활동과 같은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나 행동을 설명한 지문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익숙하지 않은 소재, 즉 수험자들이 들어보았거나 경험한 적이 없었을 법한 소재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려고 한 것임을 볼 수 있었다.

3) 대화문의 속도 분석

<표-5>

(단위: 초)

	2005	2006	2007
한 단어 당 평균 배분시간	0.45	0.41	0.47
등장 단어의 평균 개수	99	99	90

이 논문에서는 모국어 영어 화자의 평균 한 단어의 발화 속도를 0.40으로 보았다.(Maclay & Osgood, 1959)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5년과 2007년은 느리게 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사용된 단어의 수도 다른 두 해에 비하여 적었다.

2007년의 지문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컴퓨터의 자판을 치는 소리' 등과 같은 효과음을 사용하는 등 발화 이외에도 시간이 좀 더 소요되었다. 또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Hmm'과 같은 표현이나, 잠시 동안의 침묵 등이 등장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문을 형성하고는 있었으나 그 발화의 속도가 느렸다.

자연스러운 대화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화의 속도를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느리게 하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해를 위해 천천히 발화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으므로 속도의 조절은 녹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이다. 듣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천천히 발화를 하면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발화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화의 속도를 느리게 한 것이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년간의 수학능력시험의 표준

점수와 평균 속도를 각각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2005	2006	2007
표준점수	132	133	130
평균시간	0.45	0.41	0.47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대에 분산된 학생들의 수를 감안하여 변환한 상대적인 점수이다. 이 점수는 수능에서의 등급판정에 이용되는데, 표준 점수라 불리는 값은 가장 높은 급인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점수가 된다. 이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높아지고, 난이도가 낮을수록 같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 표준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읽기와 쓰기 영역까지를 다 포함한 점수이기 때문에 듣기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어 분석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 년도 별 지향하고 있는 난이도가 있으므로, 그것이 듣기에 있어서는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숫자나 발화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보기로 하였다. 살펴본 결과, 표준점수에 큰 차이는 없어, 각 년도 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속도가 가장 빨랐던 2006년도의 표준점수가 가장 높고 가장 느렸던 2007년은 3년의 시험 중 비교적 난이도가 낮았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 시에 발화의 속도는 청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듣기시험이라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화자가 그 속도를 조절 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러운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1) 대화의 남녀 성별에 따른 분석

외국어 영역 듣기에서는 총 17문항 중 남성과 여성화자의 두 명의 대화로 이루어진 지문이 13개, 내레이션이 4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레이션 지문에서는 각각 남성이 2회 여성이 2회씩 같은 횟수로 등장하고 있다. 대화의 시작을 한 사람의 성별을 내레이션 지문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면 2005년에는 남성의 등장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반대로 2006년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졌고, 2007년에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각 년도 별로 남, 여 화자의 등장 횟수를 비슷하게 조절하고자 노력하고는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2) 인접쌍의 개수

대화지문은 평균적으로 9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개의 인접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접쌍의 개수는 문항 당 주어진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발화속도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7년 지문의 경우 사용된 단어의 개수는 다른 두 해와 비교해 봤을 때 9개나 적어서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3) 년도 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i) 2005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2005년의 지문에서는 전형적인 A1→B1→A2→B2형식의 주고받는 인접

쌍의 나열로 만들어진 지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의 인접쌍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W: Hi, John. I arrived just now.

M: *Hi, Julie. How was the flight?*

지문 A는 4번 문항의 전화 대화 지문의 도입부분이다. 여성의 인사말, ‘Hi, John’ 에 대해 남성이 ‘Hi, Julie’ 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불필요하게 여겨질 정도로 철저한 인접쌍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2005년의 듣기 대본에서는 사실적인 정보를 묻고 답하고 안부인사와 감사인사의 인접쌍 대화의 일치를 잘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지문들이 대부분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좋은 예로써 볼 수 있는 지문도 있었다.

B. W: Do you sell straw hats, too?

M: **Do you want to try one on?**

예문 B를 살펴보면, 여성이 밀짚모자를 사고자 하는 여성이 판매자에게 밀짚모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남성이 ‘Do you want to try one on?’이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여성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써 봐도 된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인접쌍의 일치로 보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으나, 대화의 흐름과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볼 수 있다.

ii) 2006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다음의 예문 C는 직장동료와 콘서트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C. W: Hey, Peter. I forgot to bring my camera.

M: Oh, that's OK. I can get one from the office.

W: Should I buy some film?

M: No, it's a digital camera.

Hey, but make sure you buy two of the band's T-shirts
before they sell out. This is their last concert ever.

여성이 카메라의 필름을 ‘사야 하는지’를 묻자 남성은 필름이 아닌 다른 살 것이 있음을 여성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때, 여성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함으로써, A1→B1로 하나의 인접쌍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 말차례를 다시 가져가서 A2발화를 시작하기 전에, ‘hey’로 말차례를 지속하고자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없지만, 다른 살 것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but’을 사용하여, ‘필름은 필요 없지만, 티셔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발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D. W: You played particularly well, scoring two goals.

M: **Yeah, but it was a total team victory.** Everyone played well.

W: This year must be really satisfying. Last year you finished in last place and this year you're competing for the championship.

M: It has been a great year, but our new owner deserves a lot

of the credit for hiring a great coach.

예문 D는 여성 리포터가 경기에 이긴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인터뷰는 보통 질문과 대답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비하여, 위의 대화는 특별한 질문 없이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와 대답을 하는 운동선수가 적절히 말차레를 교환해 가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리포터의 칭찬에 대하여 ‘칭찬-감사’라는 관례적인 인접쌍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 리포터가 던진 정보에 대해 자연스럽게 덧붙이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닌, 인터뷰의 ‘목적’인 정보를 얻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발화하고 있는 인터뷰의 특징을 잘 드러낸 예문이라고 보았다.

E. W: Too small?

M: Yes, they're too small for my visa application.

The officer at the embassy said the photos needed to be one centimeter longer on each side.

W: Oh, they must have changed their photo size policy.

M: **Yeah, that's what he said.**

예문 E는 비자 발급을 위해 사진을 찍어간 남자가 규격이 바뀌어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사진관을 방문하여 사진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여성이 ‘규정이 바뀐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 남성이 여성의 말이 맞는다는 것을 제 3자의 대사관 남성 직원을 끌어들이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잘못했거나, 여성 사진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불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닌 단순히 ‘규정이 달라져서 생긴 일’이라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하네요.’ 정도의 의미를 가진 대답을 하

고 있다.

iii) 2007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F. M: Hi. I'm Frank Smith.

I'm here to confirm my reservation for a flight to Singapore next week.

W: Let me see. [typing sound] Hmm.

There seems to be a problem.

M: What do you mean? Can't I have a vegetarian meal?

W: It's not that. Your reservation has been canceled.

M: **Are you kidd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booked it ages ago.

W: **I'm sorry, but you didn't pay for the ticket.**

예문 F는 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아 항공권이 취소된 남성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약을 확인하는 직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예문에서는 화자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화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어 청자의 이해를 돕는다. 남성 화자의 말투는 다소 거칠고 예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은 오히려 사과를 하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자 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각각 손님과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서로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는 대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처음에는 격식을 차린 대화로 시작한 남성 고객이 점차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여 말투의 형식의 격식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

G. W: Hello, Sammie. Where are you off to?

M: **It' s Saturday**, so I' m going to play football in the park with my friends.

W: **Didn' t you hear the weather forecast?**

M: No, I didn' t. Why? What' s the problem?

W: There' s a heavy rainstorm coming soon. You shouldn' t go outside.

예문 G는 여성 화자가 폭풍이 올 예보가 있는데도 외출을 하려고 하는 남성 화자를 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여성이 어디를 가냐는 물음에 남성 화자는 바로 장소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은 토요일’이라는 대답을 한다. 인접쌍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지만, 남성화자가 ‘토요일 마다 하는 일이 있다’라는 배경지식이 여성 화자에게 있거나, ‘토요일에는 모두가 자유롭게 여기를 즐길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배경지식을 이용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나가면 안 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 ‘일기예보 못 보았니?’와 같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남성화자의 관심을 유도한 뒤, 폭풍이 올 일기예보가 있었으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표현을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토요일의 여가 활동’을 금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H. M: Oh, yes. There's an exhibition of video art in the town hall.

W: **You like video art, don't you?**

M: Yes, I love it.

W: **But I don't like all those flashing screens and bright lights.**

예문 H는 비디오 아트 전시에 가고 싶지 않은 여성과 가고 싶어 하는 남성의 대화의 일부이다.

남성은 여성이 비디오 아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여성은 이것을 남성에게 밝힘으로써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여성은 '비디오 아트가 싫어'라고 직접적으로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남성에게 '넌 비디오 아트를 좋아하지?'라는 답을 함으로써, 남성이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이 기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이 비디오 아트를 좋아한다는 대답만을 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국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가까운 사이의 편안한 대화상대라 할지라도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반대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상대의 의중을 묻는 발화를 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예문으로 실용적이라 생각했다. 남성 화자가 여성화자의 의도를 알아채고 '너는 안 좋아하니?'라고 물어 보았다면 더 좋은 예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2005년부터 2007년의 지문을 살펴 본 결과, 2005년은 그 이후의 2년의 지문에 비하여 상당히 교과서 적이고 치밀한 인접쌍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인접쌍의 일치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는 지문들을 등장 시키고 있었다. 또한, 대화를 나누

는 화자들의 관계를 쉽게 짐작 할 수 있는 발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듣는 이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본다.

(4) 대화의 스타일로 본 듣기 대화문 분석

<표 7>

분류	편안한 대화 형식 (Casual communication style)	격식이 있는 대화형식 (Formal communication style)
등장 횟수	35	28
대화자 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부부, 형제, 부모와 자식) · 동료 (직장, 학교) ·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문 · 안내문 · 예고편 · 고객과 상담원 · 손님과 판매원

3년간 자료의 분석결과, 등장 횟수만을 보면 편안한 대화의 형식의 (casual communication style) 대화문이 35개 제시, 격식이 있는 대화 형식을 사용한 (formal communication style) 지문이 28개로 편안한 대화의 형식이 더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식 지문의 비율을 고려해 보아도 매년 편안한 대화형식의 지문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2007년의 지문에서는 두 개의 비율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4.2 2008년-2010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말하기 듣기 문항 분석

4.2.1 문항분석

1) 듣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2008-201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문항을 교과과정의 성취 목표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표-1>는 듣기 영역의 성취목표를 평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듣기 영역

평가영역	해당 문항수			합계	백분율
	'08	'09	'10		
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 토론을 듣고 중심내용을 파악한다.	3	1	2	6	11.76
②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	4	4	5	13	25.49
③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 의도를 파악한다.	5	5	5	15	29.41
④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대화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한다.	0	0	0	0	0
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0	2	0	2	3.92
⑥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0	0	0	0	0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전후 내용을 추론한다.	3	3	3	9	17.65
⑧ 안내나 지시를 듣고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2	2	2	6	11.76

먼저 듣기 영역의 성취목표로 문항을 분석한 <표-1>을 살펴보겠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총 51개의 문항 중 15개의 문항에서 나타난

‘③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 의도를 파악한다’로, 29.41%였다.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진 것은 ‘②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로 25.49%였다. 전기에 해당하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성취기준이 문제에서 많이 다뤄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단순히 대화 속에 담긴 정보의 이해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전후 내용을 추론한다’로 총 9문항, 17.65%를 차지하였다. 네 번째는 ‘①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 토론을 듣고 중심내용을 파악한다’와 ‘⑧ 안내나 지시를 듣고 목적과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의 두 가지 평가영역으로, 각 6문항씩 출제 되어 11.76%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⑤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는 전기에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으나, 2009년에만 두 문항이 출제되어 3.92%를 차지했다. 한문항도 출제되지 않은 것은 ‘④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대화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한다’와 ‘⑥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의 두 개의 항목이었다. 전반적으로 출제 된 영역은 계속해서 출제되어 오는 반면, 출제 되어진 적이 없는 성취기준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말하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표-2>는 말하기 영역의 성취목표를 평가영역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2> 말하기 영역

평가영역	해당 문항수			합계	백분율
	'08	'09	'10		
① 주변의 인물, 사물, 사건에 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 설명 또는 보고한다.	3	2	3	8	15.69
②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실적 정보를 교환한다.	2	1	3	6	11.76
③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	1	1	0	2	3.92
④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 대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0	0	0	0	0
⑤ 대화, 연설, 역할극 등을 연습하여 재현한다.	0	0	0	0	0
⑥ 상호 작용을 통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한다.	3	4	2	9	17.65
⑦ 일반적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대화한다.	6	8	8	22	43.14
⑧ 일반적 주제의 말이나 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2	1	1	4	7.84
⑨ 일반적 주제에 관해 학습한 표현을 활용, 준비된 발표를 한다.	0	0	0	0	0
⑩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한다.	0	0	0	0	0

가장 많이 등장한 성취 목표 영역은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대화한다’로 총 51문항 중에서 22문항으로 43.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기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에도 역시, 듣기시험에서 주로 측정되는 말하기 영역의 성취 목표는 이것으로 대표된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⑥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한다’로 총 9문항이 출제 되어 17.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전기의 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중시하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① 일반적

인 인물, 사물, 사건에 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 설명 또는 보고한다’로 총 9문항이 출제 되어 15.69%를 차지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②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실적 정보를 교환한다’로 11.76%, 이어서 ‘⑧ 일반적인 주제의 말이나 글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가 7.85%, 마지막으로 ‘③ 일반적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와 ‘⑥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한다’가 3.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밖의 문항에서는 전기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한 문항도 출제 되지 않았다. 출제되지 않은 영역의 목표는 ‘발표, 토론, 역할극’ 과 같은 실제 말하기의 활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말하기 듣기의 시험을 통해서 측정하기 어려운 목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말하기’시험이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4.2.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지 분석

<표-3> 의사소통 능력 제시 분류에 의한 대화지문 분석

대분류	소분류	등장 빈도			백분율	총합
		'08	'09	'10		
사실적 정보 교환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5	7	7	9.5	27.5
	사실 확인하기	6	4	2	6	
	사실 묘사하기	8	4	4	8	
	보고하기	2	1	2	2.5	
	수정하기	0	0	0	0	
	표현 묻기	0	0	0	0	

	비교하기	0	0	0	0		
	물건 사기	1	0	2	1.5		
	음식 주문하기	0	0	0	0		
지적 태도 표현	동의하기, 반대하기	3	2	6	5.5	16.5	
	기억 확인하기	0	0	0	0		
	가능, 불가능 표현하기	2	1	1	2		
	확신여부 묻고 답하기	0	2	1	1.5		
	의무 표현하기	1	0	0	0.5		
	허락 요청하기, 허락하기	0	0	1	0.5		
	의견표현하기	5	1	4	5		
	원인과 결과 표현하기	0	1	1	1		
	길 묻기, 안내하기	0	1	0	0.5		
	인사하기	7	1	4	6		29
	소개하기	1	0	0	0.5		
감사하기	3	4	2	4.5			
주의 끌기	4	5	1	5			
칭찬, 축하, 감탄하기	2	2	1	2.5			
약속하기	0	2	2	2			
기원하기	0	1	2	1.5			
음식 권유와 응답하기	0	0	0	0			
이해 점검하기	0	0	0	0			
되묻기	0	2	1	1.5			
전화하기 및 받기	3	1	2	3			
대화 지속하기	0	1	0	0.5			
대화 끝내기	0	1	0	0.5			
제의와 초대하기	0	0	3	1.5			
도덕적 태도의 표현	사과와 변명하기	1	3	1	2.5	3.5	
	후회표현하기	1	0	1	1		
지시와 권고	설득하기	0	1	1	1	14.5	
	도움 요청하기	3	4	0	3.5		
	충고하기	5	5	5	7.5		
	경고하기	0	0	1	0.5		
	지시하기, 금지하기	1	1	2	2		
감정표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표현하기	0	0	0	0	7.5	
	희로애락표현하기	3	2	0	2.5		
	원하는 것 표현하기	0	1	0	0.5		
	동정 표현하기	0	0	1	0.5		
	소망, 의지 표현하기	2	1	3	3		
	불평하기	0	1	0	0.5		
	관심 표현하기	1	0	0	0.5		

상상하여 말하기	상상하여 말하기	0	2	1	1.5	1.5
-------------	----------	---	---	---	-----	-----

대화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의사소통능력은 ‘친교활동’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사하기’가 12번, ‘감사의 표현’이 9번 등장하여 친교활동의 영역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문제의 직접적인 풀이와의 연관성은 적었다. ‘사실적인 정보의 교환’은 ‘친교활동’에 이어 27.5%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실적 정보 묻고 답하기’, ‘사실 묘사하기’ 그리고 ‘사실 확인하기’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기에 해당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석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지적 태도의 표현’으로, 16.5%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된 하위항목 역시 전기 결과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 뒤를 이은 ‘지시와 권고’의 영역에서는 ‘충고하기’의 표현이 15문항이나 출제 되어 ‘지시와 권고’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지시와 권고하기’ 영역은 전기의 분석 결과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세부항목에서 ‘지시하기, 금지하기’의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즉,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시와 권고’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하위항목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시하기, 금지하기’에서는 비교적 직접적인 금지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비하여, ‘충고하기’에서는 듣는 이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염두에 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표현하기’와 ‘희로애락 표현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감정표현’의 영역이었다. 이어서 ‘사과와 변명하기’의 의사소통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태도의 표

현'영역과 상상하여 말하기가 51개 문항 중에서 7문항이 등장하여 3.5%를 차지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상하여 말하기가 3문항으로 1.5%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이 골고루 사용되었다는 것이 후기의 의사소통 기능 분석의 결과이다. 한편, 전기의 결과와는 순위의 순서나 구성된 하위항목에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의 실용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자 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전기의 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과 두 번째 항목간의 차이가 11.5%나 존재 하였다. 반면에 후기의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과 두 번째 항목간의 차이가 1.5%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후기의 자료에서 좀 더 의사소통 기능의 사용이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대화문에 나타난 소재 분석

각 문항에서 나타난 중심 소재를 등장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순번	중심소재		
	2008	2009	2010
1	기념품사기	그래프	가정용품(식탁)
2	자녀 고민상담	경연대회	의자
3	박수	헌혈	조별과제
4	결석	아파트 소음	컴퓨터게임
5	오페라티켓 구입	컴퓨터 판매	컴퓨터
6	디지털카메라 클럽	이웃간 친교	의약품
7	성금내기	퀴즈쇼 감수요청	문화교류
8	인테리어 상담	테니스 라켓 수리	가족생일파티준비

9	회사환경정비	관제탑	버스티켓 구입하기
10	소프트웨어 설치	인턴	공연티켓 예매하기
11	학습보조 프로그램신청	교통사고	콘서트 홀
12	로마버스투어	학생 조별활동	가정용품(전기담요)
13	미술	역사현장학습	신문사 견학
14	냄비	과속	영화촬영장
15	요리	생일선물	차/경연대회
16	목공	장난감	고글
17	원예	기념품	휘파람
18	운동화	도서연체	책
19	문자 메시지	프레젠테이션 준비	수영모자
20	현장학습(t설악산)	재활용샵	동물병원
21	학교축제	수영대회	여행계획

후기의 소재를 살펴보면 각각 21개의 중복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나 행동을 설명한 지문들이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수험자들이 한번쯤 들어는 보았거나 경험한 적이 없었을 법한 소재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등장하는 소재들 간에는 앞서 살펴본 전기의 소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비슷한 주제들이 소재를 바뀌 가며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령 ‘성금내기’나 ‘헌혈’에서는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물병원’이라는 소재를 통해 약한 동물을 돌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소재로써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티켓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소재는 매년 사용되고 있었으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소재도 매년 등장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실용적인 소재로써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퀴즈 쇼의 감수요청’, ‘영화촬영장’, ‘관제탑을 방문한 인턴’ 등과 같은 소재는 학생들에게 낯선 소재였으므로 추론 능력을 요하는 소재였다.

3) 대화문의 속도 분석

<표-5>

(단위: 초)

	2008	2009	2010
한 단어당 평균 배분시간	0.42	0.43	0.42
등장 단어의 평균 개수	99	99	90

후기의 듣기 지문의 평균속도는 약 0.42로 자연스러운 발화의 속도로 여겨지는 0.40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9년은 2008년과 2010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조금 더 느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된 단어의 개수를 살펴보면 2010년이 다른 두 해에 비하여 더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어 듣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2008년과 2009년과 보다 수험생이 느끼는 부담이 비교적 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표준점수와 속도를 <표-6>을 통해 살펴보겠다.

<표-6>

	2008	2009	2010
표준점수	131	131	133
평균시간	0.42	0.43	0.42

이 표준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읽기와 쓰기 영역까지를 다 포함한 점수이기 때문에 듣기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어 분석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으나, 해마다 지향하고 있는 시험 전체 난이도가 있으므로, 그것이 듣기에 있어서는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숫

자나 발화속도의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보았다.

살펴본 결과, 표준점수에 큰 차이는 없어, 각 년도 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앞에서 속도와 평균 단어 개수를 살펴 보았을 때 가장 수험자의 부담이 적었다고 생각했던 2010년이 오히려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후기의 화자의 발화속도가 난이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1) 대화의 남녀 성별에 따른 분석

외국어 영역 듣기에서는 총 17문항 중 남성과 여성화자의 두 명의 대화로 이루어진 지문이 13개, 내레이션이 4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화의 시작을 한 사람의 성별을 내레이션 지문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면 2008년에는 남성의 등장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2009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다시 남성의 등장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인접쌍의 개수

대화지문은 평균적으로 9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개의 인접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접쌍의 개수는 문항 당 주어진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010년은 2008년과 2009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90단어로 좀 적었으나 속도는 0.42로 2008년의 0.42와 2009년의 0.43과 비교해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다.

(3) 실용적 의사소통으로써의 좋은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i) 2008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I. W: Okay. How about the one with an English word?

M: **Well**, I want one without an English word.

But the one with just words might be boring.

위의 예문 I는 여성화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담화 표지어 ‘Well’을 적절히 사용하여 직접적인 거부가 아닌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대신 말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J. W: **Yeah...**, he seems okay, but he doesn't talk with me like he used to.

M: **Well**, that's a sign of growing up.

W: That's true, but my concern is that he only stays in his room after he comes home.

M: Does he hang out with his friends?

W: Not very often, these days. **Hmm**, maybe once every other week.

예문 J는 2008년도 모든 지문 중에서 가장 많은 담화 표지어와 망설임, 단어를 고르는 듯 한 시간을 끄는 표현 등이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의 대화의 패턴과 같은 인상을 받는다.

K. W: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him, though?

M: **I'm not an expert, but** just let him know that you are there

for him if he needs you.

예문 K는 자녀와의 문제의 상담이라는 민감한 내용에 관한 조언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전문가
는 아니지만’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 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는 유동적
인 표현을 보이고 있다.

L. W: I think helping those children would make me happier than
having a birthday present.

M: If that's what you want, I'll send some money in your name.

W: Thanks, Dad. You're great.

M: **I'm so proud of you.**

감사하기에 대한 답이 항상 ‘you're welcome’은 아니다. 예문 L는 상황
에 따라 다른 응답이 가능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 M: Yes, please.

I've just received your graphic software from Sara.

W: **Have you?** Thank you for the purchase.

Do you need any assistance?

예문 M은 고객과 상담원이라는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화지문으로, 대
답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 관심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O. W: Are you sawing this board exactly as we planned?

M: **Yes, you can trust me. I measured it twice.**

예문 O는 미심쩍어하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하며, 근거까지 함께 제시하여 대화를 간결하게 만들고 있다.

ii) 2009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P. W: **Dad, I'm tired of the noise from upstairs.**

M: **Does Tom still play the piano at night?** His father told me he'd have him stop playing after seven in the evening.

예문 P에서 여성화자의 'noise'라는 표현을 피아노 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대화자 사이에 공유된 지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 또한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Q. M: Really? I'll talk to his father tomorrow morning.

It's too late to call now.

W: **Dad, I have to study for my final exams tonight.**

M: Well..., I'll call his father now.

예문 Q는 남성 화자의 제안에 대하여, 여성화자가 직접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지금 들어 주어야 하는 이유를 드러냄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명령이나 지시,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없이도, 청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speech act'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R. M: Yes, I do. I'm sorry, Mom, but could you give me some money for the fines?

W: **I think you should pay them with your own allowance.**

남자 화자의 요구에 대하여 직접적인 승낙이나 거절의 표현은 하지 않고 있으나 거절의 의미를 담은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yes/no식의 대답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예문이다.

S. M: **Why don't you donate them to the Happy Store?**

W: **The Happy Store? What's that?**

M: It's a store dealing with donated items.

W: What do they do with those items?

M: They mostly sell them at low prices.

W: Oh, it's a kind of second-hand store. Right?

M: Yes, but all the profits go to charity.

One person's trash may be another's treasure.

대화의 전개방식이 남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첫 질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서 그에 관련한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 질문을 처음 던진 화자와 질문을 받은 청자의 입장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지문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M1→W2→M2→W3→M3→W4→M4로 길게 이어진 대화의 끝에서 여성이 W1을 보여주어야 정답이 된다는 점에서도 실제 대화상황처럼 충분한 정보를 얻은 뒤에 대답을 하는 대화의 전개방식을 문제에 응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iii) 2010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대학 수험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 시험 대화지문은 듣기 시험에 배정된 시간적인 제약, 교과과정에 지정된 학습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의 수준 유지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므로, 실제의 대화문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지문을 넣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능력의 간접적 평가’라는 대학 수험능력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실용적이고 실제와 같은 대화의 지문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듣기 대화지문에서 보이는 대화의 양식은 A1→B1→A2→B2 등으로 이어지는 화자간의 대화의 말차례가 한 번씩 번갈아 오가는 전형적인 양식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하의 예문들은 2010년 수능 듣기 지문 중에서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많은 지문들과 비교하였을 때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화용론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대화의 전략적인 요소를 보여준 예문들을 좋은 예문으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T. W: I think a square one is better than a round one.

M: **Hmm. But I think...**

U. W: Why don't we get him a heater?

M: **Well, I was thinking of getting him a new blanket.**

예문 T와 U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Hmm, Well’과 같은 담화 표지어 (discourse markers)의 사용으로 반대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dispreferred response¹⁾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V. W: Two adults and one child.

Do you have a discount for children?

M: Yes. Children from age 2 through 11 get 40% discount.

W: **Oh, that's too bad. My child is 13.**

예문 V는 대화 상대가 요구할 것이라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제공함으로써, 대화자와의 필요한 정보를 잘 주고받고 있다.

W. **A1→M: Why don't you use two monitors?**

B2→W: What do you mean by Two monitors?

A2→M: Well in my department many people use two at the same time.

B3→W: So both of them are connected?

A3→M: Uh-huh(.....)

B1→W: That's a good idea.

예문 W는 인접쌍의 순서가 항상 A1→B1→A2→B2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지문들과는 달리 상대가 바로 대답을 주지 않고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에 그 의견에 대한 답을 주는 인접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의 지문을 살펴 본 결과, 전기의 3년간의 지문보다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화문이 많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지문에서는 적절한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망설임이나 불확실함, 동의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 지문에서 보여주었다. 2009년과 2010년의 지문에서는 전형적인 말차례 주고받기인 A1→B1→A2→B2의 형식에서 벗어나 대화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주

1) 화자가 청자에게 기대한 바에 부합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의 대답을 말함. 가령, 화자의 초대 에 청자가 응하지 않거나, 부탁을 거절하는 등의 대답을 의미한다.

지 않고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에 그 의견에 대한 답을 주는 인접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함축적인 답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공유된 지식을 통해 대화의 내용의 이해가 이어지는 모습을 여러 예문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4) 대화의 스타일로 본 듣기 대화문 분석

<표 8>

분류	편안한 대화 형식 (Casual communication style)	격식이 있는 대화형식 (Formal communication style)
등장 횟수	41	22
대화자 간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부부, 형제, 부모와 자식) · 동료 (직장, 학교) ·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문 · 안내문 · 예고편 · 고객과 상담원 · 손님과 판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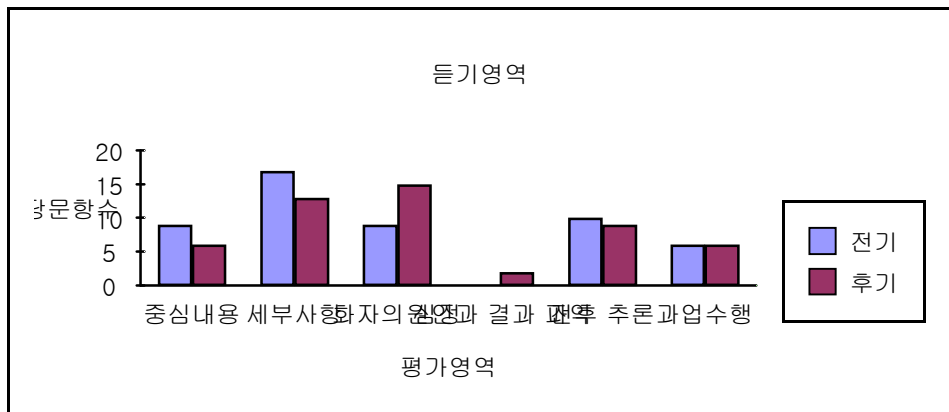
각 년도 별 분석결과의 등장 횟수만을 보면 편안한 대화의 형식의 (casual communication style) 한 대화문이 41개 제시, 격식이 있는 대화 형식으로 쓰인(formal communication style) 지문이 22개로 편안한 대화의 형식이 더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식 지문의 비율을 고려해 각 년도의 결과를 정리해 보았을 때 2008년에는 두 대화의 형식이 균형 있게 나타났으며, 2009년과 2010년은 편안한 대화형식이 조금 더 많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4.3 2005년-2010년 분석내용 정리

4.3.1 문항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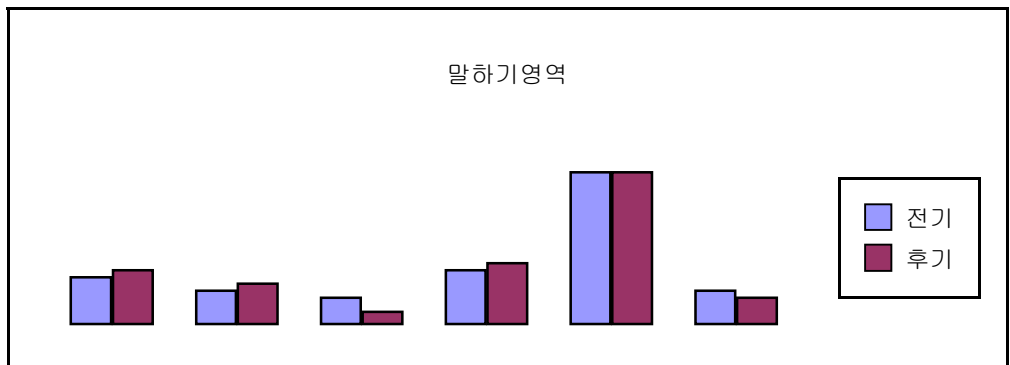
1) 듣기 및 말하기 교과과정 성취목표에 따른 문항 분석

문항 분석을 통해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평가 영역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전기에서 ‘③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 의도를 파악한다’가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후기에서는 같은 평가 기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바뀌었다. 전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②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였는데,



그 비율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과 무려 13.72%의 차이가 있었다. 반면, 후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평가 항목과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항목간의 차이는 4.08%로 근소하였다. 이것은 출제되는 영역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 시도라고 본다. 즉, 하나의 영역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내용의 정보를 청자의 나름대로의 사고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기에서는 주어진 지문에서도 비교적 명료하게 답을 알 수 있도록 ‘세부내용’이 제시되고 있어, ‘세부사항’을 찾아내는 문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대화 전체의 주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 그대로의 의미만을 이해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출제가 되지 않았던 총 두 개의 항목, ‘④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대화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한다’와 ‘⑥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는 6년간 한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수능시험의 문항자체를 명료화하려다 보니 출제하기가 어려운 유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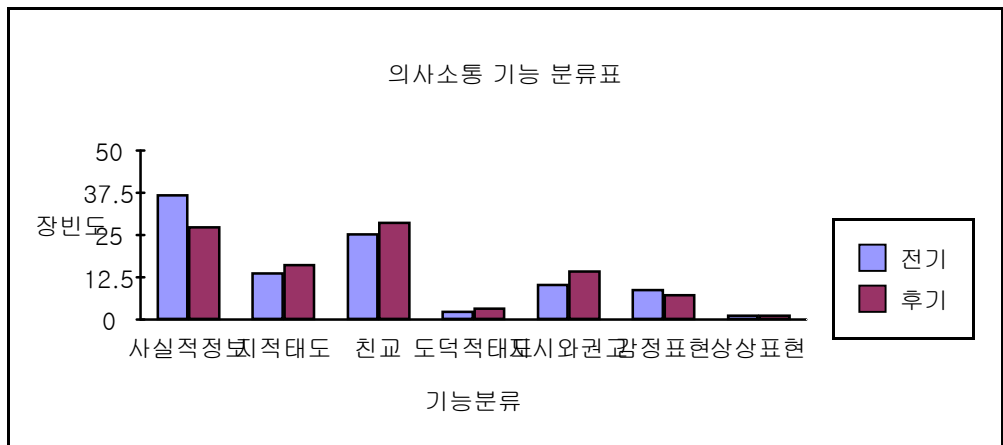


이어서 말하기 영역을 살펴보겠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⑦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대화한다’가 전기와 후기에서 모두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말하기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하기 능력의 학습

목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문형으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 영역에서도 듣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혀 출제되지 않은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6년 동안 한 번도 출제 되지 않은 채였다. 하나의 성취 영역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영역 외의 다른 말하기 능력을 적절히 측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말하기 능력을 듣기 시험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4.3.2 듣기 대본의 대화문 분석

1)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표를 통한 대화문 분석



전기와 후기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순서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사실적 정보 교환’, ‘친교활동’, ‘지적 태도의 표현’의 세 개의 영역이 공통적으로 상위에 나타나고 있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실적 정보 교환’은 전기에 비하여 후기에는 9.5% 감소하여, 전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영역이었으나 후기에는 두 번째로 밀려났다. 문항의 형태를 생각해 볼 때에도 ‘세부적인 정보’를 묻는 단편적인 문제가 전기에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하여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늘어난 후기의 문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교활동’의 영역은 크게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화자의 태도나 화자간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형성하게 한다. 전기에 비하여 ‘친교활동’영역의 대화는 3.5%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로 인하여 후기에는 ‘친교활동’의 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의사소통 영역이 되었다. 실제의 의사소통상황을 생각해 보아도 ‘친교활동’기능이 대화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대화의 형식에 있어서도 ‘편안한 대화 형식’이 ‘격식이 있는 대화 형식’에 비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화자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친교활동’의 대화 중 ‘인사하기’나 ‘감사하기’와 같은 표현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기의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과 두 번째 항목간의 차이가 1.5%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기의 수험능력시험에서 좀 더 의사소통 기능의 사용이 다양하고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적 태도의 표현’은 후기가 전기에 비하여 조금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전기과 후기 사이에 큰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지시와 권고’영역은 후기에 4.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차이는 하위 영역 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주었다. 즉 전기에서는 ‘지시하기, 금지하기’의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후기에서는 비교적 간접적 표현인 ‘충고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을 적게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염두에 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감정표현’의 영역에서는 1.5%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순위나 비율의 변화폭은 큰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태도의 표현’과 ‘상상하여 말하기’ 영역은 전기, 후기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적게 등장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후기의 지문들에서 더 다양하고 고른 분포의 의사소통 능력이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사하기나, 충고하기와 같은 직접적인 목표 성취를 위한 발화보다는 그 전에 대화의 바탕을 만드는 대화를 넣음으로써 더 사실적인 대화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대화문에 나타난 소재 분석

매년 소재는 적게는 18개, 많게는 21개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같은 해에 중복되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와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소재들이 있었다. 한편 사용된 소재들은 교훈적이거나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직접적인 단서 없이 준 지문들도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듣는 이의 추론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소재였다고 생각한다.

3) 대화문의 속도 분석

2007년을 제외한 다른 해의 시험에서는 발화속도가 대체로 약 0.42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의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하여 난이도가 낮았던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발화속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보았으나, 후기의 2008년부터 2010년의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듣기만의 결과로 만들어낸 통계자료가 아니었으며, 듣기의 발화자의 속도와 난이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 논문의 연구 결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시험이 매년 일정한 난이도의 기준에 맞추어 치밀하게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시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4) 대화문의 세부사항 분석

(1) 대화의 남녀 성별에 따른 분석

듣기 지문에서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 발화의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년 주어지는 17개의 문항 중에서 4문항은 내레이션이며 이 4개 문항은 남성과 여성화자가 각각 2개씩 나눠서 녹음을 하는 것이 6년간의 자료에서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대화의 지문에서도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가 번갈아 가면서 말차례를 잡고 있었으므로, 남성과 여성화자의 양적인 대화 기여는 거의 같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어떤 화자가 먼저 시작하는 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한 쪽의 성별에 치우친 경우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여성화자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적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성별의 차이가 전국규모의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인접쌍의 개수

대화지문은 평균적으로 9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개의 인접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접쌍의 개수는

문항 당 주어진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 년도 별 대화 예문의 화용론적 분석

후기의 지문을 살펴 본 결과, 전기의 지문보다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화문이 많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지문에서는 적절한 담화 표지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망설임이나 불확실함, 동의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 지문에서 보여주었다. 2009년과 2010년의 지문에서는 전형적인 말차례 주고받기인 A1→B1→A2→B2의 형식에서 벗어나 대화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주지 않고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에 그 의견에 대한 답을 주는 인접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함축적인 대답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사람들 간의 공유된 지식을 통해 대화의 내용의 이해가 이어지는 모습을 여러 예문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2005년에는 매우 교과서 적인 인접쌍의 연결이 이루어져 있었고, ‘세부사항’을 묻는 문항이 많았던 영향으로 올바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인접쌍에 번갈아 배치함으로써, 대화를 따라 감으로써 마지막에 제시된 ‘세부사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이 많았다. 실용적인, 사실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문은 2005년에 가장 적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 지문에서도 다양하고 실용적인 대화가 많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인접쌍의 교과서적인 연결이 보였다.

후기, 즉 2008년부터는 담화표지어의 사용이나, 부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대화의 형태를 보여주는 지문들이 등장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형식 뿐만 아니라 대답의 내용에서도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할 때 화자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 할 수 있는 대화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 전기와의 차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대화의 스타일로 본 듣기 대화문 분석

대화의 스타일은 전기와 후기 모두 편안한 대화의 형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격식이 있는 대화형식 또한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다뤄지고 있었으므로, 대화의 형식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대화의 형식은 대화를 하는 상대자나, 대화의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 되는 것으로 선택되는 소재나 주제에 따라서도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나 소재, 대화를 하는 상대나 대화의 장소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올바른 상황에 대화의 상대에 맞는 대화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문 및 문항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의식적으로 알맞은 대화형식의 사용을 촉진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외국어 (영어) 교육과정은 점차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편, 이에 따라 교과서의 개편이라는 흐름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현장인 학교의 영어 교육에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대학 수험능력시험에서의 듣기평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6년간의 대학수험능력시험의 공통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말하기 듣기시험의 지문으로 사용된 소재는 겹치는 것 없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 추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선정되어 수험자들의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험자들의 추론 능력과 같은 의사소통의 전략적인 능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를 더 많이 연구,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 교육을 증시하고자 하는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화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듣기시험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발화속도로 여겨지는 0.40의 범위에서 수치상으로는 2007년을 제외한 5년간의 자료에서는 약간의 오차만을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속도가 유난히 느려 평균 0.47을 기록한 2007년은 이전의 2005년과 2006년에 비하여 표준점수가 낮아 난이도가 두 해에 비하여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발화 속도와 전체적인 난이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어진 자료에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출제수준이 매년 큰 차이가 없다는 공식적인 발표의 내용을 감안해 보았

을 때 이러한 발화의 속도도 분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5년간의 자료에서도 각 지문간의 발화속도에 약간씩의 오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오차는 자연스러운 발화상황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 수험자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발화한 경우가거나 느리게 발화해서 생긴 차이라고 보았다.

듣기 시험의 녹음 시에도 발화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듣기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험의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데 더욱 적절한 시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통적인 분석결과 외에도 전기와 후기의 사이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차이점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전기에는 후기에 비하여 출제된 문항이 몇몇의 교육목표에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전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문항들이 후기에 비하여 더 많이 등장했던 것에 비하여, 후기에는 세부사항 뿐만 아닌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지문을 좀 더 많이 등장시켜, 청자가 더 능동적으로 대화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로, 전기에는 후기에 비하여 사실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의사소통기능을 많이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앞서 말한 세부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반면에, 후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의사소통기능은 친교활동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대화문을 사용하여 실용적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대화지문에 사용된 의사소통 기능도 전기에 비하여 후기가 더 다양하고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후기의 대화 지문들에서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준 예문이 많이 등장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전기의 지문 중에는 매우 교과

서적인 인접쌍의 연결이 이루어져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에 후기의 지문에서는 담화표지어의 활발한 사용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대화지문을 등장시켜, 사실적인 지문을 사용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후기의 지문들이 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지문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개정 전에 비하여 의사소통 기능의 측정을 위한 문항과 지문을 개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와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겠다.

첫째로, 문항의 종류에 있어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전기와 후기가 비율의 변동은 있으나 동일했으며, 다뤄지지 않은 평가 항목들은 전기 후기를 통틀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항목이 있었다. 객관식의 문제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학습 성취목표라는 이유도 있지만, 모든 학습 성취목표를 두루 평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올바른 상황에 대화의 상대에 맞는 대화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문의 개발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의 나이차이, 관계 등 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알맞은 대화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실제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들의 경우 너무 딱딱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거나 너무 직설적이어서 예의가 없는 것 같은 발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대화의 형식을 선택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능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와 후기 모두, 이러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항은 없

었다.

셋째, 듣기평가에서 사용되는 남성과 여성화자의 대화의 시작역할을 하는 비율에 대하여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수험자의 시험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 규모의 시험의 자료에서 이러한 성별의 차이에 따른 비중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공인하는 가장 큰 시험 중의 하나인 만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2010년 교육 계획보고에 의하면, 2014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듣기 평가 비중을 현재의 34%에서 5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라는 새로운 평가의 도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점차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지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17문제라는 제한으로 인하여 새로운 문형을 개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의 측정을 위한 듣기 시험의 비중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문형들이 개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영어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이에 맞추어 좀 더 실용적인 영어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능력 있는 세계화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79호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79호 [별책 14] 외국어과(I)[2]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79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3- 외국어계열
- 김익환 (2006). 문화적 요소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제32호
- 김재영 (2008). 외국어(영어)영역 듣기 평가 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 남보우 (2005). 대입수능 동등화 표준점수 산출 보정: 사례연구
- 문혜리 (2008).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B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1. pp.39-57
- 전병만 (1998).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 전북대학교
- 신동로, 권영선, 외 (2001). 외국어 학습에 일반불안과 독해 불안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논총, 21, 23-43.
- 이진화 (2006). 2005·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문항 비교 분석
- 진경애 (2006). 영어 교육 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한종임, 전지현. (2001). 제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영어 구두의사소통능력 수행 평가 방안. 외국어 교육. Vol. 8 - No. 2. 한국 외국어 교육학회.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4).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외국어(영어)영역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5). 200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외국어(영어)영역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6). 200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외국어(영어)영역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7). 200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외국어(영어)영역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8).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외국어(영어)영역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9).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외국어(영어)영역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9).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대비 학습방법안내
- Chang Bok-Myung (2003). *An Evaluation of Discourse Competence of Korean EFL students Using Discourse Completion Tasks*. Modern English Education, 4(2), 168-184.

- Asher, R. E., & Simpson, J. M. Y. (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 Brown, H. Douglas.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Fifth edition)
- Brock, R.L. (1999). *Show-and-tell: As an oral communication exercise in senior high school*. *The Language Teacher*, 23, 8, 16-18.
-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nale, M. & M. Swain.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Emanuel A. Schegloff. (2007). *Sequence Organization in Interaction A Primer in Conversation Analysis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occhiaro, M. & Brumfit, C. (198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George Yule (199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ymes,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Harmond Worth, UK: Penguin Books.
- Jan Berko Gleason & Bernstein Ratner (1998). *Psycholinguistic*, 2nd edition. Wadsworth
- Wilkins, D. A. (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f the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of the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 by the reflection of 7th and
Revised 7th National Curriculum.

Hwang, Jeong-yeo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has been improved over time to better evaluate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foster capable members of society who will be able to adapt to global conditions. Of the recent changes in English educati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 the revised 7th national curriculum announced in 2007. The revised curriculum has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new English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expansion and extension of English lessons.

This thesis has been based on the results of studies showing that listening ability is the most crucial factor i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is study,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tests in the national scholastic ability test were analyzed, and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for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in the revised 7th

national curriculum was used as a standard. Secondly, scripts were analyzed in detail in order to identify the cultural factors, discourse situation, and other factors. As well, audio files were used to analyze speech ra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educational goal of achie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has successfully influenced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o find out if there have been any meaningful changes by comparing tests taken due to the changes of English education took effect.

The materials of study were tests from 2005 to 2007, the three years as a prior part, and tests from 2008 to 2010, as a later on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later part of the test feature a wider variety of sections, including speaking and listening sections, and thus better fulfill the educational goal of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greater variety of sections also causes test takers to become more actively involved. As well, the flow of conversation in the various sections is more natural and authentic, more communicative functions are used, and these functions are used in a more balanced distribution. Finally, in the scripts featured more practical conversation, with more frequent use of discourse markers and exclamations.

Progressive and positive efforts toward improving the testing of communicative education can be seen in the revised test;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hich have not been amended.

First, a wider variety of question types are needed for measuring communicative educational achievement, since some communicative

educational goals are hard to encode into multiple choice type questions, and consequently did not appear in the test at all. Secondly, to develop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new types of questions and further script development will be necessary. Thirdly, in the audio files being used in the listening test, a more even ratio between male and female speakers is necessary. More detailed attention is required on these three points.

To make communicative competence education successful, the educational goals and the evaluation methods must be consistent. As communicative competence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development of more accurate and suitable test and script materials must be pursued for future evaluation.